

#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  
[www.kvca.or.kr](http://www.kvca.or.kr)

KVCA 이슈

[4차산업혁명 시리즈] 블록체인

VC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현황

벤처캐피탈 법률 Q&A



# Contents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2017 August vol.110

## 03

### 뉴스 & 리뷰 NEWS & REVIEW

- 
- 04 KVCA 소식
  - 한국벤처캐피탈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업무협약(MOU) 체결
- 05 연수원 소식
  - 2017년 벤처캐피탈리스트 대학(원)생 단기체험 과정 개최
- 06 투자 협력·M&A
  - 벤처투자 사랑방
  - 환경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 해양수산업 투자유치 지원
  - 벤처기업확인
  - M&A 활성화 지원사업
- 10 R&D사업
  -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
- 11 협회사 동정
  - 코스닥시장 21주년 기념 VIP 오찬 참석
  - KDB-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펀드 조성식 참석
- 12 회원사 소식
- 13 투자 유망 기업 탐방
  - (주)시웃

## 15

### 이슈 ISSUE

- 
- 16 [4차산업혁명 시리즈] 블록체인
- 18 VC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현황
- 21 벤처캐피탈 법률 Q&A

## 23

### 시장 동향 Market Trend

- 
- 24 6월 벤처 투자 시장 동향
- 30 (VC 포커스) 미국 벤처캐피탈 현황
- 33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발행일 2017년 8월 10일(통권 110호 8월)

발행인 이용성

편집인 오세현

발행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전화 02)2156-2100 홈페이지 [www.kvca.or.kr](http://www.kvca.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뉴스 & 리뷰

NEWS & REVIEW



## KVCA 소식

## 한국벤처캐피탈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7월 25일(화) 전자회관에서 ICT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연구개발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협회 오세헌 부회장, 진흥회 남인석 부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특히 진흥회

의 한국전자전과 협회의 투자협력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전자 IT 분야 기술발굴 협력 및 정보공유를 통해 양 기관의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회 오세헌 부회장은 “우수 ICT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투자자 간 기술 및 비즈니스 교류를 통해 ICT 기술의 사업화와 신시장 창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진흥회와 함께 유망 ICT 기업 발굴에 주력해 성장 가속화를 지원하고, 투자 연계를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연수원 소식

## 2017년 벤처캐피탈리스트 대학(원)생 단기체험 과정 개최

이번 교육에서는 대학(원)생들이 벤처캐피탈 산업 및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과 네트워크를 쌓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강사들과 벤처캐피탈 취업에 대해 열띤 질의응답을 갖는 등 벤처캐피탈에 대한 학생들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일자 2017년 7월 5일 ~ 7월 7일 (2박 3일 합숙)
- 장소 양평 대명리조트 2층「장미홀」

내 용	강 사
벤처캐피탈 개요 및 필수용어 정리 - 창투사, 신기사, LLC, 액셀러레이터, 엔젤, 크라우드 펀드 등	비에이파트너스 상무 이정석 前 수림창업투자 이사 손민호
한국의 벤처캐피탈 산업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김형수
벤처캐피탈 투자방법 및 투자단계별 특징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상무 김현진
Valuation & Pricing - Case study	前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이현재
벤처캐피탈과 법률 - 창지법/벤처법/자통법(PEF중심)	Cosmos Incubator 대표/변호사 이종경
VC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성 평가 및 Case study	에트리홀딩스 대표이사 조병식
초기기업 투자 및 사후관리 사례,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방안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수석심사역 신동원
(특강) 창업 및 VC 투자유치 사례	Tan.D, INC 대표이사 김찬웅



## ( 8월 교육 안내 )

- 교육명 2017년 벤처캐피탈 스핀 아카데미(3차) - 4차 산업혁명
- 운영형태 1일 출석
- 일 자 8월 31일(목)
- 대상자 창투사, LLC, 신기술금융사, 기타 일반 등
- 과정개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벤처캐피탈 산업의 변화와 이슈 파악
- 신청기한 미정
- 신청방법 본 회 홈페이지([www.kvca.or.kr](http://www.kvca.or.kr)) 온라인 신청

## 투자 협력·M&amp;A

## 벤처투자 사랑방

## 7월 벤처투자 사랑방 개최

벤처투자 사랑방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이 벤처캐피탈리스트와 대면 상담을 하면서 투자절차나 전략 등에 대해 투자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리이다.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사랑방은 지난 7월 25일 중소벤처기업 15개사와 벤처캐피탈 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한 기업 대부분은 투자유치를 희망하나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업이지만 숨은 보석을 발견하기 위해 현직 심사역이 적극 투자멘토링을 진행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벤처투자 사랑방 안내페이지(cafe.kv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 환경기업 투자아카데미 기본과정 개최 및 사업운영계획

본회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3년도부터 환경기업 투자유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9일 중소환경기업 25개사에 벤처캐피탈의 이해부터 투자계약 요령, IR 자료 작성방법 등의 교육을 진행하는 투자

아카데미 기본과정을 개최하였다. 환경부는 최근 미래환경산업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협회와 추진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해 환경기업 투자유치 설명회·상담회, 투자컨퍼런스, 해외투자로드쇼 개최를 통해 환경기업의 벤처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문의 투자협력팀 박정원 연구원(02-2156-2132, pjw@kvca.or.kr)



## 해양수산업 투자유치 지원

### 2017 해양수산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안내

본회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수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30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 해양수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엄선된 투자 유망기업 15개사의 투자설명회와 투자·M&A 상담회, 투자이향서 체결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해양수산업 100여 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수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심사역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2017 해양수산 투자유치설명회

2017년 8월 30일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7월 31일(월) 신청 마감!!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 및 기술 사업화 페스티벌**

8월 30일!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하는 해양수산 투자 유치 설명회가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공동으로 개최 됩니다.  
 해양수산 관련 기업 및 투자 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행사 개요**

행 사 명 2017 해양수산 투자 유치 설명회  
 일시/장소 2017. 08. 30 (수) / 서울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B2)  
 주최/주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KVCA  
 ※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공동개최 ([www.oceanfair.kr](http://www.oceanfair.kr))

**신청 대상**

참가 기업 해양자원, 바이오, 레저, ICT, 수산 등 해양수산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VC/투자자 해양 수산 관련 분야의 관심이 있는 VC, 엔젤투자자, 기업 투자자 등

**주요 프로그램**

**투자유치  
설명회**

해양수산업의 관심이 있는 주요투자자, 엔젤투자자, 대기업 등  
 총 70여개 투자사 모집 예정  
 총 15개 IR 참여 기업을 선발하여 IR 파칭을 진행, 이후 상담 매칭  
 및 후속 투자유치 지원

**투자  
상담회**

투자 준비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VC와의 투자유치  
 1:1 멘토링 상담  
 참가 기업에게 최소 2회 이상 상담 배치, 사후 투자 유치  
 모니터링 지원

**M&A  
상담회**

인수·합병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매칭을 통한  
 1:1 M&A 상담 진행, 사후 투자 유치 모니터링 지원

[www.ocean-investment.com](http://www.ocean-investment.com)

• 참여신청링크 <http://www.ocean-investment.com>

• 문의 투자협력팀 박정원 연구원(02-2156-2132, [pjw@kvca.or.kr](mailto:pjw@kvca.or.kr))

## 투자 협력·M&am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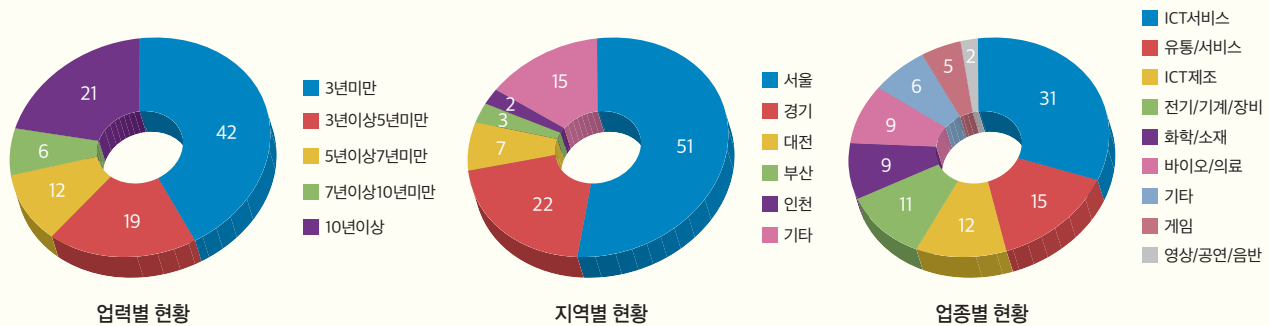
## 벤처기업확인

## 2017년 벤처기업확인 현황(상반기)

본 회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도 상반기 본 회로부터 확인 받은 신규벤처기업은 총 339개사이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 기업일반개요 (단위 : %)



## 투자유치현황

2017년 신규벤처기업 총 339개사의 투자유치금액은 총 4,975 억원이며, 아래는 해당 투자유치금액을 금액, 유형, 투자재원 및 회사 별로 분석한 내용이다.

## 전체 투자현황

(단위: 억 원)

구분	금액
총 투자금	4,975
평균 투자금	14
최고 투자금	200
최저 투자금	0.5

※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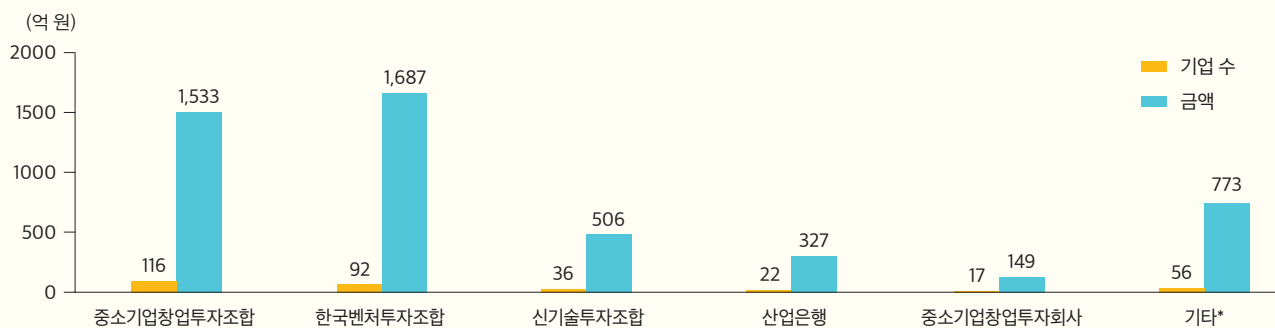
## 유형별 투자현황

(단위: 억 원)

투자유형	기업 수	총 투자금
보통주	102개사	986
우선주	215개사	3,270
CB	40개사	641
BW	10개사	76

※ 중복포함

## 투자재원 및 회사별 현황 (단위: 개사, 억 원)



\*기타: 전문엔젤, 신기술사, 개인투자조합, 외국투자회사, 기업은행 등



## M&A 활성화 지원사업

### 2017년도 상반기 M&A 거래정보망 등록현황

국내외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M&A 자문기관, 유관단체 등 M&A 관련 온·오프라인 교류의 허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축된 M&A 거래정보망은 다양한 주체가 자율적으로 M&A 매칭 및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 M&A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전문적인 M&A Deal 추진이 가능한 자문기관이 130개사 이상 등록되어 있어 M&A 상담, 기업진단, 거래성사까지 M&A 전 과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이 가능하며, 8개의 M&A 지원센터(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삼일회계법인, IBK기업은행,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한국M&A협회)를 통해 각 센터별로 특화된 M&A 관련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M&A 절차, 법률, 세무, 서류양식 등 생소한 M&A 관련 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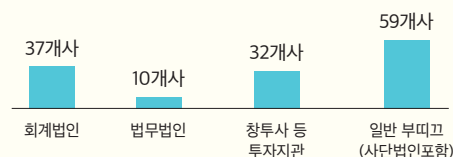
2017년 6월 말 기준 전체 등록 DB 건수는 3,598건으로 월평균 50건 이상의 M&A 희망 매도·매수기업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2017년 상반기(1~6월)에 350건의 M&A 희망기업이 신규등록 하였다. 또한 M&A 성사 건수 35건, 기업진단비용 지원 3건 등 M&A 성사 실적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성사 및 지원 건수는 더욱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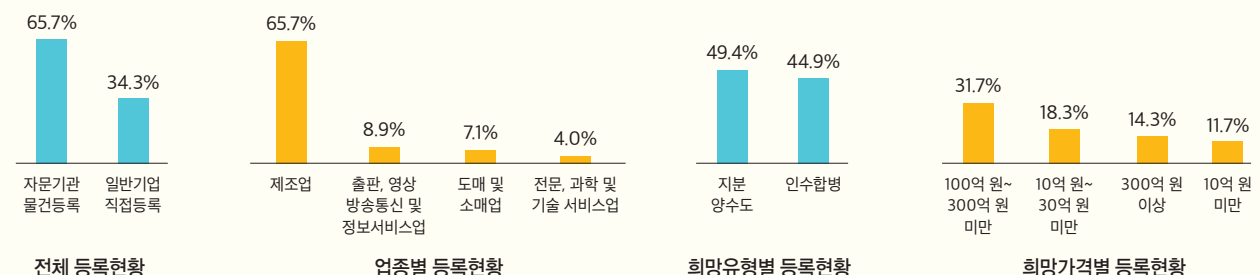
구체적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자문기관에 의한 물건등록은 230건(65.7%), 일반기업 직접등록은 120건(34.3%)으로 집계되었다. 물건등록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업종은 제조업이 225건(64.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1건(8.9%), 도매 및 소매업 25건(7.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건(4.0%) 등이 뒤를 이었다. M&A 희망유형은 지분 양수도가 173건(49.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인수합병이 157건(44.9%)으로 뒤를 이었다. 희망가격별 분포는 10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111건(31.7%)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64건(18.3%), 300억 원 이상 50건(14.3%), 10억 원 미만 41건(11.7%)으로 뒤를 이었다.

M&A 거래정보망 등록물건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기대되며, 신규메뉴(기술창업 스타트업) 신설 등을 통해 제조업에 비교적 편중되어 있는 업종분포가 기술 및 서비스 업종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M&A 자문기관 등록현황(총 138개 기관)



### M&A 거래정보망 등록 DB 통계



## R&amp;D사업

##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

## I 해외투자기관 매칭데이 개최

본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국내 벤처기업의 사업화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투자기관 매칭데이'를 7월 20일(목) VR빌딩에서 개최했다. 이번 매칭데이는 본회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R&D과제' 선정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선정기업 15개사와 투자기관 22개사가 참여하였다. 업종별 두 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 행사는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의 피칭

(Pitching)과 투자기관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투자심사역은 "국내 최상위 VC가 추천한 기업인만큼 시장성과 기술성은 물론이고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이 많았다"며 투자검토를 희망했다. 본회는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R&D과제' 선정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진출 관련 세미나, 기술코칭, 투자상담회 등을 향후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R&D과제는 국내외 우수 VC 투자기업 및 지역별 추천기업 중 해외 투자유치, 글로벌 M&A, IPO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협회가 운영기관으로 사업을 수행 중이다.



## 협회장 동정

### 코스닥시장 21주년 기념 VIP 오찬 참석

본 회 이용성 회장은 7월 3일(월) 여의도 63빌딩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된 코스닥시장 21주년 기념 VIP 오찬에 참석하였다.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의 장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하여 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본 회, 코스닥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유관기관 대표, 벤처 1세대 공로자, 주요 코스닥 기업 대표이사, 역대 코스닥시장위원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오찬을 포함한 이번 행사는 코스닥시장 개설 21주년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코스닥 MI(Market Identity)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 등 코스닥시장 개설 21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KDB-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펀드 조성식 참석

7월 19일(수) 부산 해운대(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KDB-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펀드 조성식에 본 회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맡았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의 중견기업 연합벤처 1호 펀드(500억 원) 조성 및 KDB넥스트라운드의 지역(부산) 개최를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벤처창업 생태계로 연결하여 지역별,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계기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지방 벤처생태계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 창업벤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행사에는 본 회, 벤처기업협회, 부산벤처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스타트업, VC,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중견기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용성 회장은 축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유망 중견기업으로, 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벤처캐피탈 투자뿐 아니라 다양하고 지속적인 벤처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다.



# KVCA

## 회원사 소식

###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DSC Follow-on 성장사다리펀드’와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투자조합’을 통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하고 자율주행차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팬텀AI에 170만 달러(한화 약 20억 원)를 투자했다.

###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기업인 ‘위엠비’에 투자했다. 투자는 ‘SGI 퍼스트뱅크스타트업 펀드’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 20억 원어치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소프트뱅크벤처스

덕우전자의 코스닥 상장이 임박해오면서 투자한 지 반년 만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해졌다. 한편 ‘에스비넥스트미디어노베이션펀드’를 통해 국내 비디오 커머스 스타트업 블랙크티비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

###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대성창업투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와 대성창업투자가 ‘연구개발특구 일자리창출투자펀드’를 통해 투자했던 보안솔루션업체 SSR이 코스닥 상장사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매각되어 21억 원의 매각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530억 원 규모의 글로벌헬스케어펀드를 조성했다. 주요 LP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출자한 1,200억 원 규모의 멀티에셋글로벌파트너쉽3호로 190억 원을 출자했다.

### 유큐아이파트너스

초기기업 투자 펀드결성을 추진한다. 2009년 회사 설립 후 초기기업 펀드결성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승환 신임 대표의 초기기업 투자 확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뉴패러다임투자조합’을 통해 소셜 미디어 광고 플랫폼 기업 와이즈버즈의 구주 70억 원어치를 인수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와이즈버즈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10%가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 케이비인베스트먼트-포스코기술투자

400억 원 규모의 ‘KB포스코조선업구조개선 펀드’의 결성총회를 열고, 펀드 운용에 본격 착수했다. 모태펀드가 앵커 LP로 나서 200억 원을 출자했고 케이비인베스트와 포스코 기술투자는 각각 125억 원, 75억 원씩 출자했다. 후에 100억 원 추가 증액(멀티 클로징)할 예정이다.

### 쿨리코너인베스트먼트

‘CCVC 신디케이트 리드펀드’를 통해 지난달 건축자금 P2P금융플랫폼 티스퀘어가 추진한 2억 4,500만 원 규모의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며 2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 ‘CCVC-부산청년창업펀드’를 통해 2억 원을 추가 집행하며 투자 규모를 늘렸다.

### 키움인베스트먼트

산업은행과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블라인드 PEF(‘키움뉴마진글로벌파트너쉽펀드’)를 결성해 중국 시장을 공략할 국내 기업 및 중국 현지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는 일종의 패러럴 구조로 국내 펀드는 670억 원, 역외 펀드는 330억 원 규모다.

### 대표이사 변경

회사명	변경 전	변경 후
알바트로스 인베스트먼트	김태주	김태주, 모성수 (각자 대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회사명	말소 사유	말소일	비고
솔레어 인베스트먼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2017.7.4	LLC로 전환 후 회원자격 유지 (회사명 : 솔레어파트너스)

### 사무실 이전

회사명	변경 전	변경 후
이수창업투자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85길 24 (역삼동, 유니팍타워 8층)

TEL : 02-3482-2010 / Fax : 02-3482-2015



# 투자 유망 기업 탐방

## IoT 보안 전문회사 '시옷'

### 보안솔루션 고수 뒀던 스타트업

- 다기기 적용이 편리한 HW 방식 보안기술 개발
- SW 방식보다 우월한 안전성
-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카, 스마트홈 등 활용 분야 무궁무진

자동차, 냉장고, TV, 드론 등 일상생활의 모든 제품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제품이 해커의 표적이 되었다. 과거 PC를 통해 네트워크를 관리하기만 하면 보안 문제가 해결됐던 것과 달리, IoT 시대에는 표준화되지 않은 수많은 제품이 네트워크에 접속해있다. 이처럼 해킹 위험은 증가하는 반면, 관련된 보안 인프라 및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다. 이것이 IoT 시대에 보안 전문회사(주)시옷(CIoT·Cryptographic IoT)이 주목받는 이유다.

### 최고의 보안전문가들이 만든 IoT 보안 전문기업

CIoT(대표 박현주)은 급증하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들의 안전한 통신과 인증접근제어 보안대책을 제시한다. 이 회사는 2015년에 설립된 IoT 보안 전문 스타트업이다. CIoT은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업계에서 꽤 잔뼈가 굵다. 암호, 기기인증, 보안플랫폼 개발기술로 SKT, KT, LG U+, LG전자, SK브로드밴드 등 대기업들을 상대하며 다년간 보안솔루션을 공급해온 보안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회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현주 대표는 SK텔레콤, LG U+, KT, LG전자 등에 기기인증, 암호화 솔루션, 보안플랫폼 등 국내 모바일인터넷 및 기기인증분야에서 국내 최대 사업 다수를 수행한 국내 최고의 보안전문가이다.

### 모든 IoT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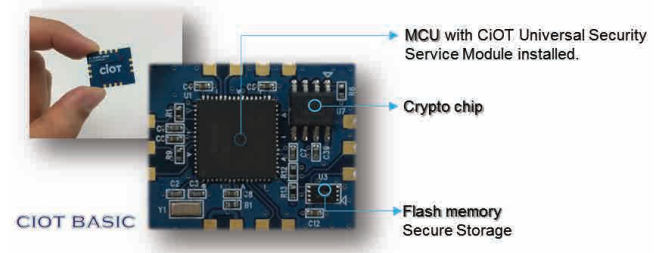
IoT는 집안의 초소형 가전제품에서부터 국가 기반시설까지 넓은 응용분야와 다양한 사양을 가진 기기에 사용되는 만큼, 모든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대표는 "Different Device Same Security"라는 목표 아래 IoT 서

스를 구성하는 초소형 기기부터 스마트폰과 같은 고사양의 기기까지 모두 통합 적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IoT 제품들이 여러 벤더사를 통해 빠른 속도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데 일부 제품에만 적용되는 보안기술이 아닌 거시적으로 IoT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기기들을 통합 관리하고, 해커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접근제어, 인증을 지원하며 프라이보호를 위한 콘텐츠 암호화 보안기술을 개발하고자 박차를 가했다.

### 하드웨어 방식의 새로운 접근 시도

CIoT는 최근 IoT 기기 모듈에 맞게 하드웨어(HW) 보안 모듈을

#### ● Security Module : CIoT Basic



### CIOT provides

**Simple, Easy, Lightweight, Full-cover IoT security**  
Using **Hybrid(H/W+S/W) Approach**

- 1) Satisfying International Security Standards
- 2) Supporting Various Protocol & Airtech
- 3) Owning Korea Government Certification

경량화해 최적화했다. 또한 기존 HW 보안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IoT 환경 암호화, 기기인증 접근제어 외에도 안전한 키 관리 등을 제공한다. HW 보안 모듈에 눈을 돌린 건 IoT 기기에서 소프트웨어가 한계에 봉착한 탓이다. IoT는 PC와 달리 저사양에 운용체계(OS)도 다양한 기기가 연결된다. 기기마다 일일이 SW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HW 방식은 관리가 어렵다.

CIoT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했다. SW와 HW 기술을 결합해 IoT 기기를 안전하게 지킨다. 기기인증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확보한 경량화 기술을 하드웨어에 넣어 서버와 연결한다. 업데이트와 관리를 처리한다.

### 범용화 및 용이성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국내 및 글로벌 시장 동시 공략을 추진하는 CIoT은 국내외 표준 규격을 탑재 개발했다. 2016년 이후 본격적인 개발 및 제품 라인업을 하며, 국내외 시장 제품검증 및 시장검증을 진행하여, 피드백을 반영하고 제품 판매와 제후 등의 많은 실적을 이루고 있다.

### 무궁무진한 국내외 시장

IoT 기기와 서비스 보안적용 범위가 넓어 가속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CIoT은 2015년 설립 후 미래부 융합보안 실증사업의 일환인 스마트그리드 보안사업에 참여하여 한전 스마트미터기에 개발한 보안 모듈 공급, 2016년에는 펌웨어 위변조방지보안기기에 USB 보안 모듈을 공급했다.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홈, CCTV 외에도 IoT 보안게이트웨이, 드론업체와도 협력을 맺고 HW 보안 모듈 적용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카, 스마트빌딩 관련 업체에서도 상용화 협업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 ● 하드웨어 보안모듈기반 USB 공급

HW 보안모듈 (Plug-USB)



#### ● 한전스마트 그리드 하드웨어 보안(암호)모듈 공급

H/W 암호모듈



#### ● 시옷 경쟁력



### 부산 스마트시티 IoT 보안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등

#### 2017년 본격적인 성장 시작

2017년 7월 부산 스마트시티를 위한 IoT 보안 인프라 구축사업을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글로벌수준의 부산 스마트시티 보안모델 제시와 함께, 글로벌수준의 보안제품으로 자리를 잡을 계획이다. 올해 스마트홈게이트웨이에도 2차 초도물량까지 공급한 CIoT은 올해가 본격적인 시장진입을 통한 성장 시작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국내 IoT 기기, LoRa 기기 업체 및 독일, 인도 등의 글로벌 업체와 협업을 추진 중이다.

#### IoT 보안은 곧 CIoT

스마트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카 등 IoT 적용 분야가 확대될수록 IoT 기기가 확대되며, 작은 기기 하나하나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oT를 구성하는 End 기기까지 적용하여 H/W 기반의 IoT 보안솔루션 시장 역시 무궁무진하다. 연내 글로벌 시장 진입을 추진 중인 CIoT은 2017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매출과 부산 스마트시티 보안구축에 따른 IoT 보안 선도기업 자리매김 후, 국내외 IoT 보안 시장에서 성장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다.

#### (주)시옷(CIoT) H/W 기반의 IoT 보안제품 및 솔루션(암호화, 기기인증, 통합기기관리)

- 기존 소프트웨어보안 모듈과는 달리, 성능이 열악한 IoT 기기에서도 고수준 보안 적용 가능한 HW 기반의 서비스보안 모듈 판매 및 통합솔루션을 공급
- 2015년 한전 스마트그리드 보안을 위한 한전 스마트미터기에 제품 탑재 공급
- 2016년 제품 출시(CIoT Basic) 및 라인업
- 2016년 스톤브릿지이노베이션펀드, 롯데엑셀레이터 투자협약
- 2017년 스마트홈게이트웨이 제품에 H/W 보안 초도물량 공급계약
- 2017년 7월 부산 스마트시티 IoT 보안을 위한 IoT 보안 인프라 사업 계약 및 구축 진행 중
- 2017년 open 범용하드웨어, 제품 출시, LoRa 용 제품 출시 추진 예정
- SKT 협력업체 등록, 국내 및 독일, 인도 해외 업체 등과 협업추진 중.
- 국내외 특허 다수 출원 및 국정원 검증암호 모듈 보유



# 이슈

ISSUE



## [4차산업혁명 시리즈]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몰고 올  
변화의 시작

최용관  
(주)블록체인OS 부사장



암호화 화폐가 연일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 내리고 있다. 이제는 일반인들에게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관련 업종 종사자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기도 하고 우려스러운 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으나 카페의 인터넷에서 원본 가치 이전의 인터넷으로 변화하는 미래 세계를 상상하면 앞으로 암호화 화폐(Crypto Currency)와 블록체인 기술이 바꿀 세상은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모습의 미래가 될 것이다.

## 암호화 화폐가 변화시킬 경제구조

암호화 화폐는 기본적으로 P2P로 거래를 만들어 내고 송금,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미 그것에 대한 실험과 연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이 지닌 사회적 기술의 영향으로 모든 거래 자체에 변화를 만들고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 발전의 미터링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개별 주택에서 생산된 전기를 암호화 화폐로 지급하고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곧 선보일 것이다.



이것은 더욱 큰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으로 도시 전체가 움직이고 모든 결제가 암호화 화폐로 이루어지며 인간의 개입 없이도 도시 기능 전체가 블록체인에 의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상태이다.

이는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생산력에 있어서도 급격한 발전으로 적게 일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조직적 변화가 예상된다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세상의 혁명적 모습이 될 것이다.

### 법정 화폐에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지난 2016년 하반기 90여 개국의 은행이 비공개로 모여 법정 화폐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발행하는 것을 논의하고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올해 중국 인민은행이 이미 위안화의 디지털화가 개발 완성 단계에 있다는 발표를 했으며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싱가포르 달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개념증명을 마친 상태라고 한다.

민간은행들도 1:1 대응 화폐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바로 일본의 경우가 그런 상태이며 일본은 카드사용률이 15%에도 미치지 않기에 바로 암호화 화폐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모든 전 세계의 인류가 지류 화폐와 동전이 없는 세상을 곧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기존의 국가를 뛰어넘는 암호화 화폐와의 경쟁도 치열할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국경을 뛰어넘어 아주 적은 수수료로 국제 송금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의 모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국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 국가의 원조나 지원도 암호화 화폐를 이용하여 중간 관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수혜자에게 직접 보낼 수 있게 되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이나 실손보험을 글로벌하게 블록체인으로 구축하여 중간 신뢰자가 없이도 자동적으로 보험이 처리되고 손해 사정이 이루어지면서 보험금이 암호화 화폐로 트러스트 계약에 의해 자동 지급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글로벌한 상호부조와 계가 만들어지고 안전하면서도 이자가 거의 없는 P2P대출과 상호부조가 암호화 화폐와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인터넷을 통한 금융의 편리함보다 더욱 편리하면서도 자산의 유동성과 가치 이전에 있어 위험

이 전혀 없는 안전한 혜택을 누릴 것이지만 그 비용은 아주 적게 부담하는 새로운 금융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곧 맞이하게 될 것이다.

### 암호화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전망과 과제

암호화 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그래서 기술적 결함이나 프로젝트가 도중에 중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암호화 화폐를 통한 벤처기업과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자금 모금이 일명 코인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글로벌하게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ICO가 지역과 국가를 넘어 기술력과 가능성을 지닌 기업들이 이전의 자금유치 방식에서 벗어나 쉽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실물 자산의 손쉬운 유동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경제구조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금융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무궁무진한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사회적 기술(조직론)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공공행정 등의 기반 기술로 쓰일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이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블록체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암호화 화폐에 대해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의하면서 엄청나게 거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암호화 화폐 거래소의 보안과 투명성을 높이는 법적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집중 육성하는, 가치 블록체인 진흥법의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여 범국가적 지원과 샌드박스(규제 없이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규제 프리 지역) 운영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해야 하는 절실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인간을 배제하는 기술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인간이 개입되어야만 운영되는 미래 기술이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신규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술이 될 것이다. 이미 본인이 일하고 있는 블록체인 OS는 전 세계 블록체인 관련 조직 - 언론, 거래소 또는 재단, 기업 등 - 중 전 세계 영향력에서 50위 안에 들 정도로 성장했다. 능력 있는 많은 청년과 도전 정신을 가진 분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블록체인을 통해 지금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시야를 넓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세상에 맞서 본다면 인터넷 강국에서 블록체인 강국으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민족에게 활짝 열려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 VC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현황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예고일 : 2017.6.7. / 의견제출 : 2017.7.16까지 / 상태 : 진행 중)

### 개정이유

- 사업연도 말일 이후에 대·중견기업과의 관계기업에서 탈피해도 차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관계기업 제도가 기업의 실질적 지배관계를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졸업유예를 포기하고 중견기업이 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확인 시 기업의 주된 업종 판단에 준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가 개정됨에 따라, 신규·변경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규모 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관계기업 판단 시점 개선(안 제3조의2, 안 제3조의3)

- 사업연도 말일 이후에 지분관계 변동 등 지배종속관계 변화로 관계기업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외 사유가 해소된 기업은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새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졸업유예 포기 허용(안 제9조, 안 제9조의2)

-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졸업 유예 없이 바로 중견기업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유예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예기간 부여

- 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반영(안 별표 1, 3)

- 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업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 표준산업분류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규모 기준을 표준산업분류 개정 이전에 속하던 업종과 동일할 수준으로 신설하고, 업종명칭 변경 등을 반영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② (생략) (신설)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자 또는 그 소유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 기간 등) ① (생략) (신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② ~ ④ (생략)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 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신설)	제9조(유예 제외) ..... 1. ~ 3. (현행과 같음)
	4.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만 기업의 포기 의사에 따른 효과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당해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 2(유예 포기)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 제4호에 따라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 등 1,500억 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8. 광업	B	평균매출액 등 1,000억 원 이하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평균매출액 등 800억 원 이하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수도업	E36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C18	
2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평균매출액 등 600억 원 이하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400억 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 등 400억 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교육 서비스업	P	
44. 임대업	N76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분류기호 C30393, 분류기호 C31202 중 철도차량용 의자제조업, 분류기호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500억 원 이하로 한다.
2.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20억 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C26	평균매출액 등 80억 원 이하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평균매출액 등 80억 원 이하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C18	평균매출액 등 80억 원 이하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 등 30억 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10억 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분류기호 C31202 중 철도차량용 의자제조업, 분류기호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 원 이하로 한다.

2.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

(예고일 : 2017.7.31. / 의견제출 : 2017.9.11까지 / 상태 : 의견제출기간)

### 개정이유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시, 필요한 납입 자본금을 완화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시 필요 자본금 : (현행) 50억원 → (개선) 20억원

- 아울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담보 제공 또는 채무 보증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완화(제9조제1항제1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완화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담보 제공 또는 채무 보증 금지 규정 명확화(제10조제4항제3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 .....
1.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1. .... 20억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
④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3. .... 자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

### 의견제출

- 온라인 :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우편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전화 : 042-481-4422, Fax : 042-481-4418)

[우편 의견서 기재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벤처캐피탈 법률 Q&A

## 회계장부열람권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 Q 회계장부열람권의 내용

종류	소유 주식 비율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100분의 3 (상법 제466조 제1항)	1,000분의 10(또는 5%)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 1. 의의

- 상법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소수 주주(상장회사 1,000분의 10)에게 직접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소수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66조 제1항)
- 주주는 열람·등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허용<sup>2)</sup>(아래 참고 요건)

#### ※ 가처분의 신청취지(예시)

- 채무자(회사)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를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에 한하여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채무자(회사)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 ]년 [ ]월 [ ]일 현재의 주주명부를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에 한하여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주주 등은 회사 재산 운용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운용상 문제점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음
- 상법 제488조, 제466조, 제542조의6, 동법 시행령 제32조, 상법 제396조 등 참조

#### ※ 보전 대상의 특정

- 실무상 회사의 기밀 유출 가능성, 감사인 선임청구권의 활용 가능성, 상법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무한정 인정하지 않고, 대체로 회계장부는 회사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로, 회계서류는 회계장부 기입의 재료로 된 서류로서 회계장부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서류로 한정하여 인정
- 회계장부에는 상법 제488조에 규정된 회계장부 이외에 분개장, 전표, 일계표,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법인통장 사본이 포함되고, 회계서류에는 계약서, 주문서, 대금청구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표, 통장, 지출결의서 등 거래의 내용을 직접 담고 있는 서류가 포함

1)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름

2)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1]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열람·등사의 대상 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개작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 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다.

[2] 주식회사 소수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열람, 등사청구권은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 열람 및 등사의 회수가 1회에 국한되는 등으로 사전에 제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 거래 자체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거래가 발생하게 된 원인 또는 거래의 경과 등을 나타내는 서류, 예컨대 특정 계약의 추진 내지 성사를 위한 내부 보고서, 품의서나 회의록, 계약과정에서 오고 간 서신이나 의향서, 타법인 출자에 앞서 주식 가치를 평가한 서류 또는 실사 자료 등은 회계서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영업 현황에 관한 자료도 이에 해당하지 않음<sup>3)</sup>
-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는 열람·등사의 청구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회계장부 및 서류에 한정되므로, 주주는 열람·등사의 청구 이유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회계장부 및 서류의 명칭,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함<sup>4)</sup>

#### ※ 보전의 필요성

-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영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575)
- [1]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가처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가처분 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 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채권자들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이 본안의 소송물인 열람등사청구권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2] 상법

제3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는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주장·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1997. 3. 19. 자 97그7 결정)

#### 2. 청구의 정당성

- 회사는 주주의 열람청구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함(상법 제460조 제2항)
- 열람청구의 정당성 여부는 주주의 알 권리와 열람을 허용할 경우 회사의 불이익을 비교衡量하여 판단
- 단순하게 경영감시의 필요성과 같은 추상적 이유로는 불가하나, 이사의 부정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
- 이유는 구체적이어야 함; 『회사의 어떤 업무집행행위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적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한편 소수주주가 열람청구의 이유로 제시하는 회사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적정한 행위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대구지방법원 2005. 5. 31. 결정 2002카합144)

#### 3. 열람의 대상

- 반드시 청구대상이 되는 회사가 작성한 것에 국한되지 않음. 회사가 보관하고 있고 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필요한 경우에는 타 회사(예, 자회사)가 작성한 서류도 대상이 될 수 있음;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것이 회계서류인 경우에는 그 작성명의인이 반드시 열람·등사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국한되어야 하거나, 원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열람·등사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1항에서 실질주주명부의 작성·비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주에게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무는 실질주주를 포함한 주주는 실질주주명부에 대해서도 열람·등사권을 가진다고 보고 있음

4) 이사회 의사록은 상법 제391조의3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람·등사를 하여야 하는 서류이므로, 민사 가처분으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는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 시장 동향

MARKET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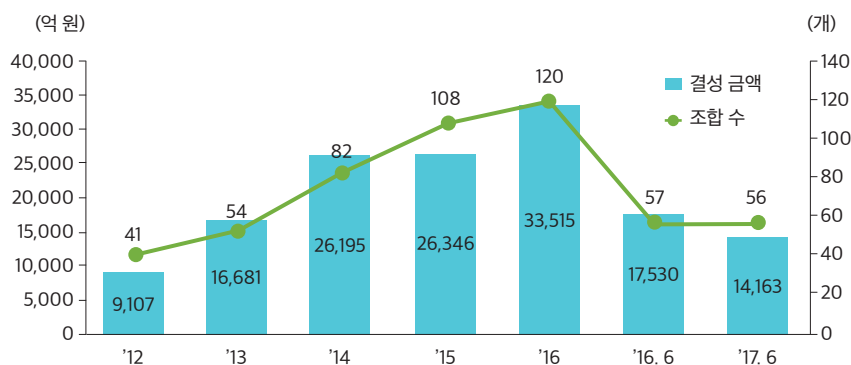
## 6월 벤처 투자 시장 동향

- 상반기에 56개 조합(창투조합 30개, KVF 26개)이 14,163억 원의 규모로 신규 결성
- 상반기까지 총 194건(128개사)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신규투자금액은 9,926억 원으로 전년 동기(9,750억 원) 대비 176억 원(1.8%) 증가
- 상반기 회수는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가 48.2%로 가장 높았으며, 프로젝트를 통한 회수비중이 22.2%를 차지

## 투자 자원

## 조합 결성

- 상반기에는 56개 조합, 14,163억 원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57개 조합, 17,530억 원) 대비 신규결성 조합수는 1개(1.8%) 감소, 결성금액은 3,367억 원(19.2%) 감소한 수치이다.

연도별  
신규 결성 조합  
출자자 비중

- 상반기에 신규 결성된 투자조합의 출자자 비중은 금융기관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법인 17.1%, 정책기관이 14.3%, 벤처캐피탈이 11.9% 등의 순이다.
- 특히 벤처펀드 출자자 중 정부(한국모태 포함), 산은·정금, 성장사다리를 제외한 민간출자자 비중이 66.9%로 전년 동기(64.9%) 대비 2.0%p 증가한 수치이다.

[illegible]



## 6월 신규 결성 조합 주요 현황

### 에 스 엘

에스엘인베스트먼트는 한국모태펀드 17년 5월 수시출자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다. 주요 투자 분야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취약한 성장 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이다. 국민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며 중점 투자 분야 이외에 세컨더리 투자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펀드로 운용할 예정이다.

### 프 리 미 어

프리미어파트너스가 바이오 섹터 펀드를 결성했다. 바이오 펀드 결성을 위해 바이오투자팀을 신설했으며,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에 6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프리미어파트너스는 추후 해당 펀드의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 에 스 브 이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는 두 번째 헬스케어 펀드를 결성했다. 중국 허난진언투자유한공사와 공동으로 운용하며,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2017년 6월에 17개가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이중 세컨더리 펀드 3개,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 2개, 바이오 펀드 2개가 포함되어 있다.
- 결성금액별로는 에스엘인베스트먼트의 'SLi 쿼텀 성장 펀드'가 950억 원으로 가장 컸고, 프리미어파트너스의 '프리미어 글로벌 이노베이션 1호 투자조합',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의 'SV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펀드2호'가 각각 750억 원, 530억 원으로 결성되었다.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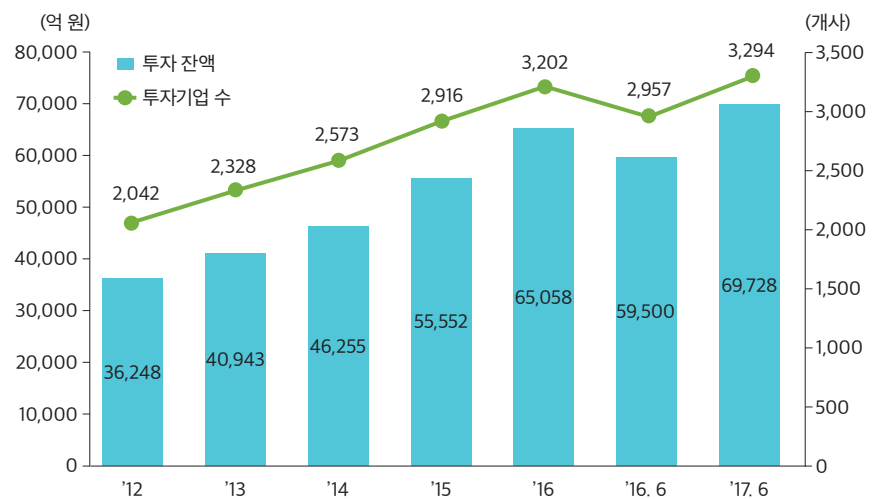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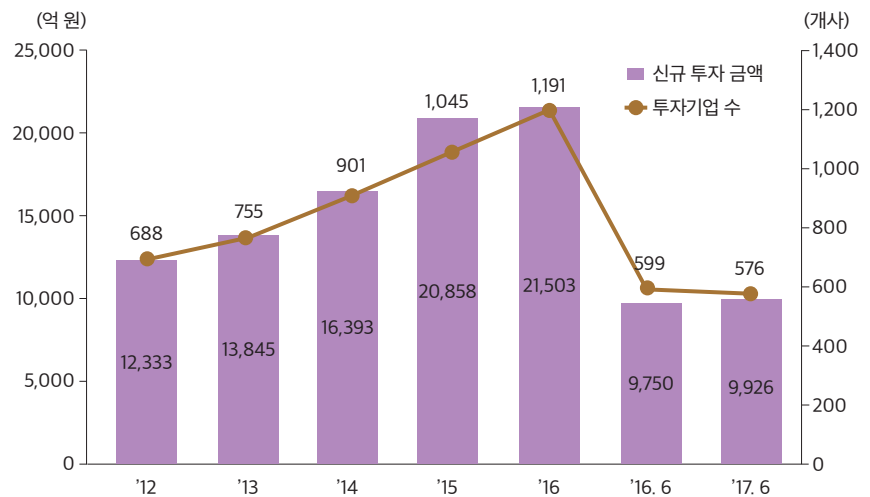
GP명	구분	조합명	결성 금액	목적 구분	투자분야
케이런벤처스	창투자조합	케이런 2호 스타트업 투자조합	30	일반	중소·벤처 일반
지비보스톤창업투자	창투자조합	보스톤 성장지원 4호 투자조합	30	일반	중소·벤처 일반
더웰스인베스트먼트	창투자조합	더웰스닥터스헬스케어펀드제1호투자조합	50	일반	중소·벤처 일반
티지씨케이파트너스	창투자조합	티지씨케이콘텐츠투자조합4호	50	문화	문화 기타
한국투자파트너스	창투자조합	한국투자 Ace 투자조합(17)	380	일반	중소·벤처 일반
더웰스인베스트먼트	KVF	더웰스인베스트먼트 청년창업투자조합	100	일반	중소·벤처 일반
스톤브릿지벤처캐피탈	KVF	스톤브릿지오피튜니티1호투자조합	171	일반	중소·벤처 일반
비에이파트너스	KVF	비에이피제1호첨단기술투자조합	140	일반	중소·벤처 일반
유니온투자파트너스	KVF	IBKC-UNION세컨더리메자닌투자조합	100	일반	중소·벤처 일반
화이인베스트먼트	KVF	화이-M&A투자조합	55	일반	중소·벤처 일반
프리미어파트너스	KVF	프리미어 글로벌 이노베이션 1호 투자조합	750	일반	바이오
시너지아이비투자	KVF	시너지 Value Creative 벤처펀드	30	일반	중소·벤처 일반
케이비인베스트먼트	KVF	포스코-KB 조선업 구조개선 투자조합	400	일반	중소·벤처 일반
에스엘인베스트먼트	KVF	SLi 쿼텀 성장 펀드	950	일반	중소·벤처 일반
현대기술투자	KVF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500	일반	중소·벤처 일반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KVF	SV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펀드2호	530	일반	바이오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KVF	IMM 세컨더리 벤처펀드 2호	142	일반	중소·벤처 일반

## 6월 벤처 투자 시장 동향

### 신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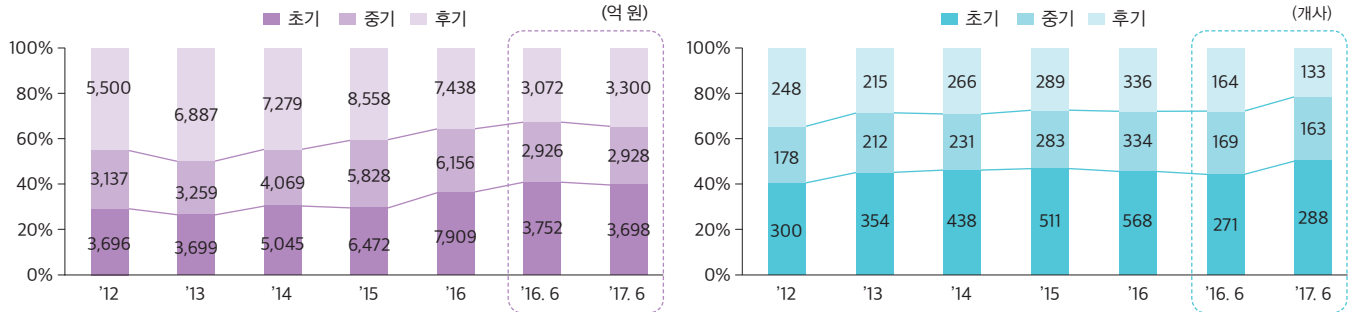
#### 전체 신규 투자 및 투자 잔액

- 상반기까지 신규투자는 9,926억 원으로 전년 동기(9,750억 원)보다 1.8% 증가하였고, 투자업체 수는 576개사로 전년 동기(599개사) 대비 3.8% 감소하였다.
- 6월에는 직방이 12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카페24, 수젠텍, 위더스제약, 오름테라퓨틱, 와이즈버즈, 카테노이드 등의 순이었다.
- 투자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상반기까지 3,294개 업체에 6조 9,728억 원 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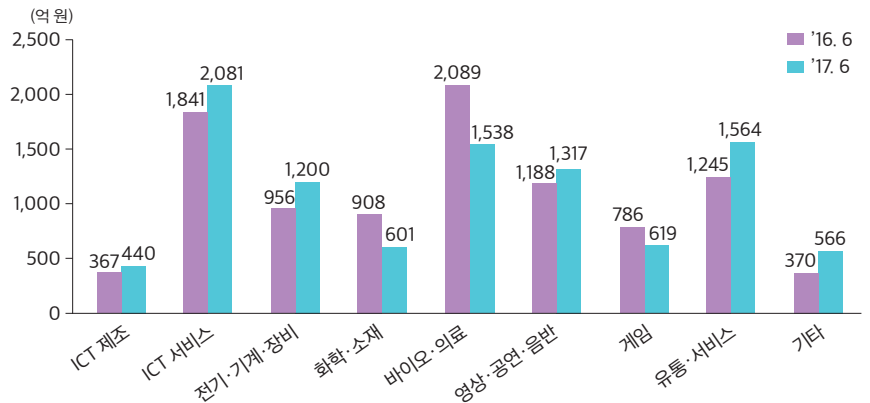
## 업력별 신규 투자

- 상반기에는 초기기업 투자비중이 37.3%로 가장 컸으며, 후기기업 33.2%, 중기기업 29.5% 순으로 투자가 되었다.



## 업종별 신규 투자

- 업종별로는 ICT서비스 2,081억 원, 유통·서비스 1,564억 원, 바이오·의료 1,538억 원, 영상·공연·음반 1,317억 원 순으로 신규투자가 되었으며, 유통·서비스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 (31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바이오·의료 분야는 551억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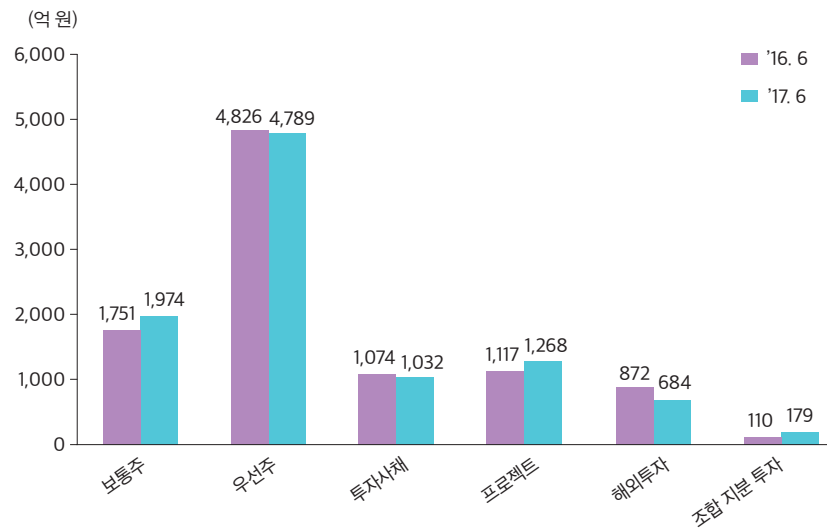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6	2017. 6
ICT 제조	2,099	2,955	1,951	1,463	959	367	440
ICT 서비스	918	1,553	1,913	4,019	4,062	1,841	2,081
전기·기계·장비	2,433	2,297	1,560	1,620	2,125	956	1,200
화학·소재	1,395	989	827	1,486	1,502	908	601
바이오·의료	1,052	1,463	2,928	3,170	4,686	2,089	1,538
영상·공연·음반	2,360	1,963	2,790	2,706	2,678	1,188	1,317
게임	1,126	940	1,762	1,683	1,427	786	619
유통·서비스	608	1,092	2,046	3,043	2,494	1,245	1,564
기타	342	593	616	1,668	1,570	370	566
합 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9,750	9,926

## 6월 벤처 투자 시장 동향

### 유형별·지역별 신규 투자

- 투자유형별로는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이 4,789억 원으로 전체투자의 4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통주가 1,974억 원으로 19.9%였다. 반면 해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88억 원 감소하였다.
- 보통주 투자가 전년 동기(18.0%) 대비 1.9%p 증가한 19.9%로 확대되었고, 프로젝트 투자는 12.7%로 전년 동기(11.4%) 대비 1.3%p 증가하였다. 반면 해외투자 비중은 6.9%로 전년 동기(9.0%) 대비 2.1%p 감소하였다.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6	2017. 6
보통주	2,403	3,425	3,297	4,226	4,437	1,751	1,974
우선주	4,887	5,038	6,103	8,786	10,398	4,826	4,789
CB·BW	1,833	3,049	3,276	3,272	2,823	1,074	1,032
프로젝트	2,459	1,944	2,681	2,471	2,427	1,117	1,268
해외투자	751	389	1,036	1,951	1,147	872	684
조합 지분 투자	0	0	0	152	271	110	179
합 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9,750	9,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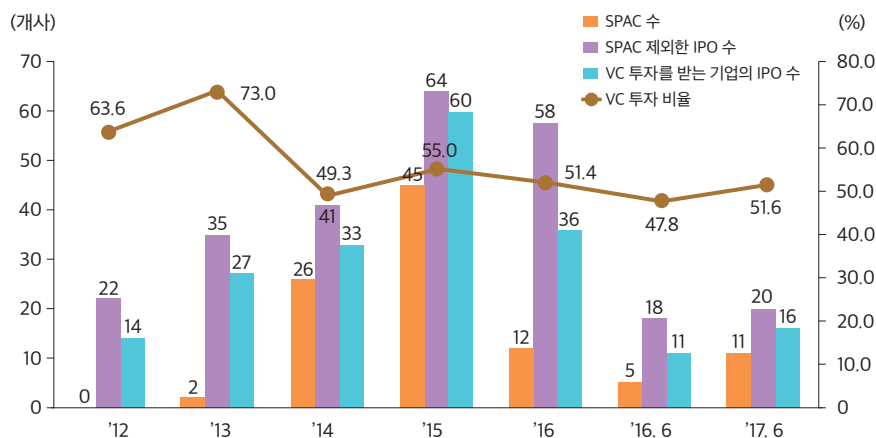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서울(53.3%)을 비롯한 수도권(78.7%) 소재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5대광역시 7.9%, 해외 6.9% 등의 순이었다. 해외기업에는 28개사 684억 원(6.9%)이 투자되었다.



## 투자 회수

## 유형별 회수

- 상반기 회수원금은 3,384억 원이며, 그중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비중이 48.2%로 가장 높았고, 프로젝트가 22.2%, IPO 17.6%였다.
- 특히, 6월은 주식 투자의 회수비중이 높았는데, 78건의 거래를 통해 250억 원을 회수하였다. 이 중 주식상환을 통한 회수가 131억 원(52.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식매각을 통한 회수가 98억 원(39.2%)이었다.
- 6월에는 코스닥시장에 9개사(아이비케이에스 제6호 기업인수목적, 필옵틱스, 삼양옵틱스, 보라티알, 한화수성기업인수목, 매일유업, 교보 7호 기업인수목적, 하나금융 9호 기업인수목적, 제일홀딩스)가 상장되었으며, 이중 필옵틱스, 교보 7호 기업인수목적 2개사가 VC투자를 받았다.



※ 자료원 : 한국거래소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6	2017. 6
IPO	1,220	1,072	1,411	2,784	2,817	1,696	593
M&A	72	22	163	150	329	49	158
프로젝트	1,533	1,613	1,639	1,605	1,924	968	749
장외 매각 및 상환	주식	2,655	2,363	3,080	3,724	1,622	1,206
	채권	1,165	1,025	1,311	1,045	456	425
기타	188	736	217	342	476	93	253
합 계	6,833	6,831	7,821	10,219	10,315	4,884	3,384

## (VC 포커스) 미국 벤처캐피탈 현황

※ NVCA(미국)에서 발표한 2016년 통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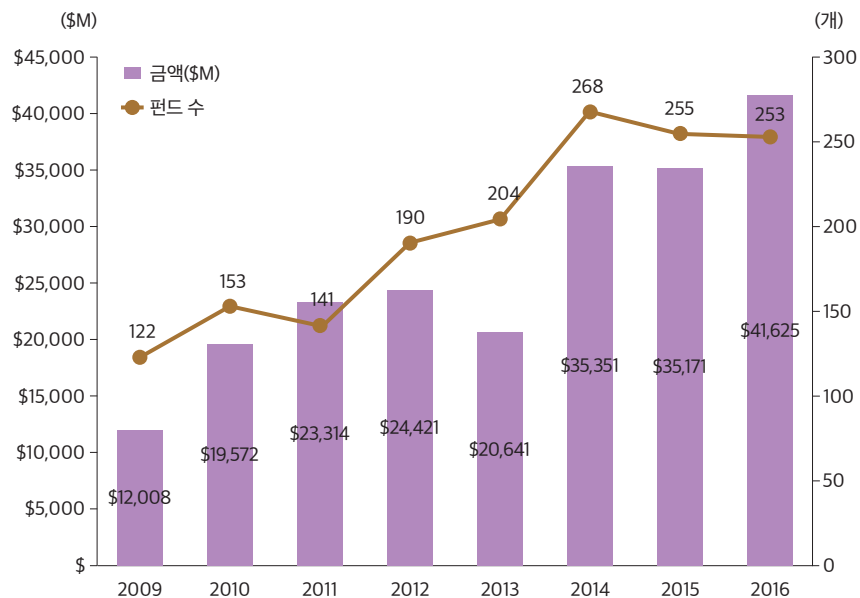
※ (재원) 미국 253개 41,625백만 달러(48조 3,054억 원, 전년대비 18.3%↑),

※ (투자) 미국 8,136개사 69,107백만 달러(80조 1,987억 원, 전년대비 12.8%↓),

\* 환율은 2016년 평균환율 적용 (1달러=1,160.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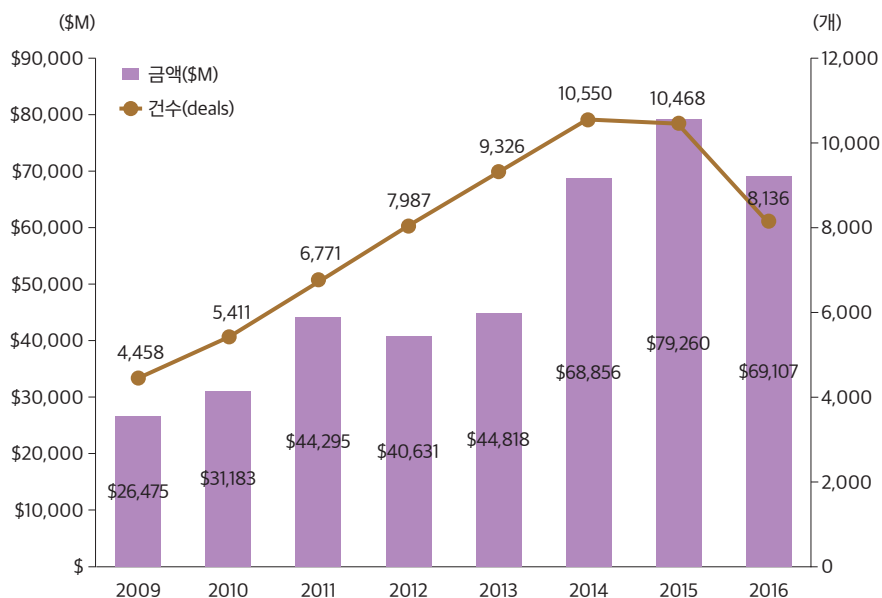
### 재원

- (신규펀드) 2016년에는 253개의 펀드가 41,625백만 달러(48조 3,054억 원) 규모로 신규 결성 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8.3% 증가



### 투자

- (신규투자) 2016년에는 8,136건(Deals), 69,107백만 달러(80조 1,987억 원)로 지난해 대비 12.8% 감소



- 2016년에는 작년과 같이 Uber Technologies와 Snapchat 등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VC투자를 받았으며, 숙박공유 플랫폼 Airbnb, 암치료제 회사인 Mersana Therapeutics 등이 다음 순

## 2016년 분기별 신규투자기업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6년 1/4분기		2016년 2/4분기		2016년 3/4분기		2016년 4/4분기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1	Mersana Therapeutics	800	Uber Technologies	3,500	Airbnb	850	ContextLogic	500
2	Magic Leap	794	Snapchat	1,271	Moderna Therapeutics	474	WeWork Companies	260
3	Wework Companies	430	GT Force	300	Intarcia Therapeutics	215	Open Door Labs	210
4	Relativity Media	400	Moderna	200	Unity Technologies	181	BuzzFeed	200
5	Oscar Insurance	400	Zoox	200	Payoneer	180	Stripe	150

\*자료원: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U.S."

- (성장단계별 신규투자) 미국은 2013년 이후 Early Stage 단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성장단계별 신규투자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Angel/Seed	6.2	5.7	8.8	10.8	10.3	10.3	9.6
Early Stage	36.3	31.4	32.7	33.9	29.8	31.1	34.9
Later Stage	57.5	62.9	58.5	55.3	59.9	58.6	55.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업종별 신규투자) 전통적으로 Software 중심의 ICT 서비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47.7%의 높은 투자비중 기록

## 성장단계별 신규투자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ICT제조	8.9	9.8	8.5	6.8	6.3	5.0	3.1	3.6
ICT서비스	26.5	25.3	31.7	32.9	33.6	42.7	39.4	47.7
바이오·의료	32.1	29.0	21.0	25.2	24.7	21.0	23.5	21.7
환경·에너지	7.7	9.5	7.3	6.7	4.1	3.1	1.8	1.9
문화콘텐츠	3.6	3.6	6.3	3.7	5.3	3.8	3.5	2.1
소비재·서비스	2.0	1.9	3.6	4.0	3.7	3.1	3.9	3.1
유통	6.9	7.8	8.7	7.4	8.9	7.0	7.2	5.0
기타	12.3	13.1	12.9	13.3	13.4	14.3	17.6	14.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VC 포커스) 미국 벤처캐피탈 현황

## 회수

- (회수유형) 2016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전체 IPO 공모금액이 39개사 2,929백만 달러(3조 3,986억 원), 전체 M&A거래 금액은 177개사 43,895백만 달러(50조 9,397억 원)

## 회수유형

(단위: 백만 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IPO	1,255	3,692	5,939	21,458	9,117	10,566	8,073	2,929
(비중)	8.0	12.2	16.1	39.8	25.2	12.9	16.0	6.3
M&A	14,437	26,584	30,957	32,478	27,124	71,176	42,300	43,895
(비중)	92.0	87.8	83.9	60.2	74.8	87.1	84.0	93.7

- 2016년 미국의 IPO는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Nutanix가 238백만 달러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였으며, Twilio(150백만 달러), Coupa Software(133백만 달러) 등이 높은 금액을 기록

## 2016년 분기별 IPO기업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6년 1/4분기		2016년 2/4분기		2016년 3/4분기		2016년 4/4분기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1	AveXis	95	Twilio	150	Nutanix	238	Coupa Software	133
2	Editas Medicine	94	Intellia Therapeutics	108	Apptio	96	AquaVenture Holdings	117
3	Corvus Pharmaceuticals	71	Acacia Communications	104	Protagonist Therapeutics	90	Quantenna Communications	107

\* 자료원: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U.S."

- 2016년 미국의 M&A는 바이오/의료 회사인인 Stemcentrxs가 5,800백만 달러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였으며, Legend Pictures(3,500백만 달러), Jet.com(3,300백만 달러) 등이 높은 금액을 기록

## 2016년 분기별 M&amp;A기업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6년 1/4분기		2016년 2/4분기		2016년 3/4분기		2016년 4/4분기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기업명	금액
1	legend Pictures	3,500	Stemcentrx	5,800	Jet.com	3,300	Krux Digital	700
2	Jasper Technologies	1,400	Danal	3,750	AppLovin	1,400	Appirio	500
3	SolidFire	870	Cruise Automation	1,000	IT Cosmetics	1,200	ClariPhy Communications	277

\* 자료원: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U.S."



##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 한국벤처투자

한국모태펀드 2017년 2차 정기 최종 선정 결과, 선정조합수 5개, 최소결성규모 850억 원, 모태출자액 478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모태펀드 2차 정기 출자사업 신청회사 및 출자요청 금액 (단위: 억 원)

구분	계정	출자분야	최소 결성규모	모태 출자액	신청회사명
2차 정시	문화	방송·드라마	150	90	일신창업투자(주)
			100	60	가이아벤처파트너스(유)
			130	78	(주)에쓰비인베스트먼트
		NEW콘텐츠	200	100	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
	관광	관광산업 육성	270	150	(주)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KB증권
계			850	478	

자료: 한국벤처투자

또한, 한국모태펀드는 8,700억 원 규모의 3차 정기 출자사업에 나선다. 지난해 3차 정기보다 5,6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이하 모태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덕분이다.

벤처조합 결성 목표액은 1조 2,865억 원이다. 분야별로 △청년 계정 3,300억 원(펀드 목표 5,500억 원) △중진 계정 5,000억 원(6,697억 원) △지방과 중진특허협력 계정이 각각 200억 원(334억 원) 등이다. 한국벤처투자는 펀드 출자자가 확정돼 즉시 펀드결성이 가능하거나 기존 펀드 소진율이 높은 운용사를 우대할 방침이며, 또 펀드 수익이 발생하면 민간 출자자에게 모태펀드 출자지분을 살 수 있는 권한(콜 옵션)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벤처투자는 8월 16일에 제안서

모태펀드 3차 정기 출자사업 계획

(단위: 억 원)

분야		모태펀드 출자 예정액	결성 예정액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
청년	청년창업	3,300	5,500	60%
중진	재기지원	2,500	3,125	80%
	4차 산업혁명	2,500	3,572	70%
	소계	5,000	6,697	
지방	지방기업	200	334	60%
중진특허협력	지식재산권	200	334	60%
합계		8,700	12,865	

자료: 한국벤처투자

접수를 마감하고, 9월 말 최종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운용사는 3개월 이내인 12월 말까지 조합 결성을 완료해야 한다.

### 한국성장금융

한국성장금융의 3차 기술금융투자펀드 운용사로 LB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됐다.

기술금융투자펀드는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한국성장금융은 이 펀드에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100억 원을 출자한다. LB인베스트먼트는 민간자금을 매칭해 최소 500억 원의 펀드 결성금액을 만들 예정이다.

한편 반도체 성장펀드 성장단계 부문 위탁운용 제안서 접수 결과 L&S벤처캐피탈과 KDB캐피탈-BNW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출자를 신청했다. 한국성장금융은 이들 가운데 1곳을 선정, 300억 원을 출자할 방침이다. 출자 재원은 반도체펀드에서 200억 원,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00억 원씩 총당한다.

### 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은 올해 사모(PE)펀드와 벤처캐피탈(VC)펀드 출자사업 위탁운용사로 지원한 50곳 중 11곳을 선정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5,150억 원을 출자 약정해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8월 내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최종 선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로 펀드결성을 완료해야 한다.

2017년 한국산업은행 PE·VC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명단

펀드 구분	리그 구분	운용사(가나다순)
PE 펀드	대형	제이케이엘파트너스
	중형	네오플렉스
	소형	이앤에프프라이빗에쿼티
	루키	와이제이에이인베스트먼트
		웨일인베스트먼트
VC 펀드	대형	엘비인베스트먼트
	중형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티에스인베스트먼트
	소형	엠지인베스트먼트
	중기특화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루키	대덕벤처파트너스

자료: 한국산업은행

##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또한, 산업은행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중견기업들과 함께 5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7월 19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중견기업 연합펀드인 'KDB-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펀드 1호(1호 펀드)' 조성식을 개최했다. 1호 펀드는 산업은행이 100억 원, 선보공업(100억 원)과 태광, 세운철강 등 부산·경남에 위치한 중견기업 13곳이 400억 원을 출자했으며, 앞으로 기술중심의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된다. 1호 펀드의 위탁운용사(GP)는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이 맡는다.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한국IT펀드(KIF)가 2017년 정기 출자사업을 통해 845억 원을 출자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5곳의 자조합 운용사를 선정하고, 1,380억 원 규모의 KIF 자조합을 조성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ICT 일반과 지능정보산업, 초기 창업 부문의 운용사를 각각 선정한다. ICT 일반 부문을 3곳, 지능정보산업과 초기 창업 부문을 1곳씩 뽑기로 했다.

ICT 일반 부문은 KIF가 180억 원을 출자하고 최소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면 된다. 지능정보산업은 KIF 출자금 200억 원을 토대

로 최소 130억 원을 모집, 33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야 하며, 초기 창업 부문에는 KIF가 105억 원을 출자하고, 45억 원을 추가로 모집, 최소 13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면 된다.

지난 7월 28일 마감된 KIF 출자사업 접수 결과, 25곳의 운용사가 제안서를 냈으며, 선정 결과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국가'를 표방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농·식품 펀드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올해 2차 수시출자부터 '4차 산업혁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2차 수시출자를 통해 120억 원을 출자하며, 자조합 결성 규모는 총 200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투자 분야는 특수목적 분야 세컨더리펀드 또는 일반 농림축산식품과 특수목적 분야 6차 산업화다. 특수목적 분야 세컨더리펀드(또는 일반 농림 축산 식품)에 대한 농·식품 모태펀드의 최대 출자비율은 50%로 50억 원을 출자받은 위탁운용사는 민간 유한책임투자자(LP)를 모집해 최소 50억 원 이상의 조합을 결성해야 한다. 특수목적 분야인 6차 산업화의 출자비율은 70%로 70억 원을 출자받은 위탁운용사는 민간에서 30억 원 이상을 매칭하면 된다. 4차 산업혁명 인센티브는 투자금액의 1%로 책정됐으며, 농금원은 올 들어 기존 초기 투자 인센티브와 함께 특수목적 인센티브를 새롭게 도입하기도 했다.

### 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슈퍼맨퍼드 3호'를 조성한다.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50억 원을 출자하며, 운용사의 의무출자 비율은 결성액의 10%, 운용 기간은 투자 기간 5년을 포함해 총 8년이다.

이번 3호 펀드는 해외진출 지원이 주목적으로, 선정된 GP는 펀드 재원 중 100억 원 이상을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중 50억 원은 투자 이전에 수출실적이 없었으나 투자 이후 해외 수출을 시작한 기업, 투자 이후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200% 이상 상승한 기업, 투자 이후 해외에 현지법인 합작법인을 운영한 기업에 투자된다.

경기도는 7월 31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며, 8월 중 선정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GP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결성을 마쳐야 한다.

### 2017년 KIF 출자신청내역

부문	KIF 출자금액	선정 운용자 수	신청회사명
ICT 일반	180억 원	3	KB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네오플렉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TS인베스트먼트, L&S벤처캐피탈, 대성창업투자,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캐피탈원, 케이큐브벤처스, 케이앤투자파트너스, 크리설릭스코리아, 화이인베스트먼트-ID벤처스
지능 정보 산업	200억 원	1	한국투자파트너스, 시너지아이비투자-요즈마코리아
초기 창업	105억 원	1	스틱베스트먼트, 유니온투자파트너스, 마젤란기술투자, 케이넷투자파트너스, 코리아메가투자금융, KST인베스트먼트, 데일리벤처투자, 대덕벤처파트너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GB보스톤창업투자

자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투자 관련 규제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조성 및 인프라 마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부터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는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정기 구독 신청 문의 및 기고 보내주실 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 TEL. ☎ (02)2156-2125 • FAX ☎ (02)2156-2110

• E-mail ☎ [newsletter@kvca.or.kr](mailto:newsletter@kvca.or.kr)

#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